

캐릭터 바이오그래피

서도운

이윤재와 고등학교 때부터 동급생이었으며, 그렇게 친하지도 서먹하지도 않은 (소위 말해,) 비즈니스 관계였으나 성인이 된 이후로 급격히 친밀해졌다. 무관심한 부모님과 독립적인 성격 탓에 외로운 삶을 이어나가던 중 모종의 '거래'로 인해 윤재와의 관계가 형성된다. 어쩌다 연락하게 되어 한두 번 만나다보니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도운은 윤재와 서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라 여겼기에 부고 소식에 충격적 감정과 배신감이 교차했다. 도운은 영정사진 조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윤재의 상황에 당혹스러움과 동정심을 느끼지만 이내 상주의 역할을 자처하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윤재의 장례식을 홀로 지킨다. 윤재의 부고 소식 이후 상주를 도맡아 했지만 현실을 회피하며 방어 기제로 인해 윤재를 탓하며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

이윤재

어렸을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외국에 입양이 되었으나 파양이 된 후 사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 인물. 가족은 물론, 친척도 없기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믿는다. 도운과의 '거래'를 통해 가까워졌으나 처음 의도와 달리 지나치게 그와 친밀해졌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도운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극단적 선택을 취했다.